

도서관산책

색깔이 다른 도서관 사람

정 대 현

색깔이 다를 만도 하다.

구십 여명의 사서분이 계신 이 곳에 행정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는 사람이 들이
니, 색이 다르다고 할만 하다. 며칠 전에 한 분이 더 오셔서 이제는 셋이 되었다.

일단 패(?)를 돌릴 수 있는 인원이 되었다.

무엇인가를 해낼 수는 있지만 강한 색을 내기에는 좀 부족하게 보인다.

요즈음 이 곳 도서관에서는 책 냄새가 나지 않는다.

그보다는 오히려 '삐~비빅' 울리는 감응기의 경고 소리와 스캐너의 '딱~' 소리, 그리고
자판을 두드리는 '따다닥'이 더욱 익숙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.

이용자들도 더 이상 느긋하고 자유롭게 깊숙한 의자 속에 몸을 묻고, 책장을 넘길 수
있는 여유는 없다. 턱을 괴고 눈을 반쯤 감고 앞에 놓인 책 속의 구절을 고민스레 되새기
는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없다.

그저 반듯한 탁자에,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된 의자에 앉아,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거
나, 마주보면서 무엇인가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.

문득 탁하게만 느껴졌던 예전의 그 책 냄새가 다시 그리워진다.

겨울철 추운 교실 조개탄 난로위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던 도시락 내음처럼....

요즈음 우리 도서관의 가장 큰 관심은 '찾아가기 서비스'이다.

그 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아쉬움을 채워드리려고 '이것이 제법 괜찮습니다.', '이런 것도
있습니다.'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.

곳곳에서의 좋은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. 도서관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한참 달려가고 있
다.

헌데 옆에서 보는 나의 마음이 그리 한가롭지 못하다. 이렇듯 좋은 서비스를 받으시던 분이 어느 날 홀로 서게 될 입장이 된다면 어찌되는가?

끝까지 제공해 드리면 좋는데, 한없이 확대될 모든 분들의 입맛에, 그것도 자율로 무장한 고도의 전문가의 입맛을 어찌 하나하나 맞출 수 있을까? 하는 걱정이다.

혹여 우리 도서관 분들이 지쳐버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다. 단기적인 다소의 만족이 오히려 장기적인 불편으로 남는다면 어찌되는 것인가?

고민해 볼만한 일이다.

잘~ 되어야 될 텐데.

내가 아는 도서관은 사람과 문화 그리고 학문이 함께 숨쉬는 곳이다.

자료로 가득 채워진 커다란 서고 건물이 아니라, 자료를 매체로 하여 사람과 문화와 학문이 만나는 곳이고, 그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.

한 없이 자유로운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, 서로 부딪치며, 한바탕 신나게 어울리기 좋은 곳이다.

이곳에서 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그러한 어울림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며, 또한 이 곳을 삶의 한 자리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다.

나는 색깔이 다른 도서관 사람인지라, 지금 나의 이러한 생각이 맞는 것인지는 모른다.

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네 도서관 사람들 모두가 우리대학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니, 그 등대에 칠해져 있는 색이 분홍색이든, 보라색이든 그 색채를 가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.

다만, 발하는 빛이 '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의 색'이라면 족하지 않겠는가?

나는 내일도 그 색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도서관 사람이고 싶다.